

게리 예이츠 박사, 12서, 10회, 아모스, 심판의 환상과 회복의 약속, 아모스 7-9장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0과, 심판의 비전과 회복의 약속, 아모스 7-9장입니다.

아모스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은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고 폭풍처럼 천둥소리를 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나라들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는 그들을 면제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땅의 나라들은 범죄와 폭력과 다른 민족에 대한 사회적 죄로 노아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모두 범법이나 파샤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반역하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책의 두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판결의 성격, 판결의 이유, 그 정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죄, 그들의 불의한 행위,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하지 않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모스 연구 초기에 우리는 그의 설교에 세 가지 주요 관심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부에 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예배의 몸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한 세부 사항은 3장부터 6장까지 우리를 위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칠 군사적 재난과 패배에 대한 심판과 경고 가운데서도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면제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인 7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냉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사자이시며 천둥치는 폭풍이십니다. 책의 이 특정 부분에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심각성과 불길한 성격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는 다른 방식, 대조적인 방식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일련의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비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계시하시는 방식은 그들이 환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이러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을 하시려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고 실제적이며 극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종종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상을 설명하고 그들이 그 의미, 관련된 상징을 이해하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아모스서에는 7장부터 9장까지 일련의 다섯 가지 심판 환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끝 부분에서 모든 선지자는 심판과 구원의 사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마침내 회복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예언서 전체를 살펴보면 아모스는 가장 냉혹한 심판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심판 때에 백성의 90%가 끌려가거나 죽는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처럼 사자의 입에서 찢겨져 나가서 귀와 꼬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리가 좀. 그 심판이 그토록 엄하고 엄중한 책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고 선지자들이 전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준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넓은 계시와 더 완전한 계시를 볼 때 그 소망은 어떻게 이해되고 발전됩니까? 먼저 아모스 7-9장에는 다섯 가지 심판의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각각의 비전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전달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7장에서 아모스는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보라, 나중의 싹이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할 때에 그가 메뚜기를 만들고 있었느니라.

그리고 보라, 그것은 왕이 잔디를 깎은 후에 나중의 성장이었다. 그들이 땅의 풀을 다 먹은 후에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며 용서하옵소서 하였더니 야곱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 작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뜻을 굽히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7장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침입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이 지역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농작물을 먹어치울 메뚜기의 침입은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약의 저주 중 하나였습니다.

4장에서 그들은 최근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환상을 봅니다.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이 온 땅에 번져 그 땅을 완전히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모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작아서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농업적, 경제적 파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구약의 하나님, 진노하고 복수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자주 묘사되는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번역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를 봅니다. 언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자신을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그 동정심에는 죄를 기꺼이 용서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분은 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코가 길다는 뜻이다. 즉, 사람이 화가 나서 폭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코, 콧구멍이 벌렁거리거나 붉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더디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이 심판은 끔찍하고 끔찍하고 중요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기한을 늦추시는 것을 봅니다.

정치인들은 일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없을 때 유연한 마감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점점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탄력적인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부분에서 행하셨던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호와께 언약을 어긴 죄 이후, 이 관계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선지자로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애굽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멸하셨다 함을 들으면 어떻게 말리이까? 그 결과 우리는 여기 아모스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는 마음을 바꾼다.

그분은 심판을 보내지 않으시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주님의 반응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대다수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여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중재했고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이 극적인 뇌우를 보내실 때,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중재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하나님이 결단코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목회적 책임을 맡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돌봄 아래 있고 우리가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 중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아모스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시점이 이르면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하지 아니하며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러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는 선지자들의 중재로 인해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에서 구해 주었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모세와 사무엘이 과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중재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백성을 위해 중재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사역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심판에서 면하게 하려고 하시고, 선지자의 중보에 응답하여 주님은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계획했었다. 나는 선지자 에스겔이 유다 역사의 후반부를 다루면서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이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거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중 하나는 일어서서 백성을 위해 중재하거나 다시 회개하도록 촉구할 아모스, 모세, 사무엘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 행동, 말, 회개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면 구약 성경 전체에 한 사람이 기도한 예가 흩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가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은 그의 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메뚜기 떼의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심판의 환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환상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7장 4절.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니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라고 명하셨느니라. 그것이 큰 바다를 삼키고 땅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데, 불이 땅을 휩쓸 것이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산불을 본 적이 있다면 그 파괴력을 아실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여러 성읍들에 불을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불이 이스라엘 땅을 삼키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메뚜기 재앙보다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발 그만 두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너무 작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심판의 맹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두 배로 기꺼이 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환상은 1과 2의 환상에 이어 3, 4, 5의 환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심판은 취소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언제나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유다보다 일찍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유연한 기한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가능한 판단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피할 수 없는 판단으로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것은 이 환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세 번째 심판 연설은 7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여기에 환상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보고 나서 이 그림과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놓는다. 나는 다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 심판을 행하리니 산당들이 황무하며 성소들이 황폐하리니 여로보암의 집이 황폐하리니 내가 칼로 그 집에 임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안전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성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에 다림줄을 그어 놓으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주어진 비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 anak 를 다림줄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

다림줄은 끝에 무게가 있는 줄이나 밧줄입니다. 수직선의 목적은 이 측정선이 벽의 직진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업자가 다림줄을 낮추면 건축업자는 이 벽이 직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까? 기울어지거나 너무 수직이 아니면 결국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 벽은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무너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와 율법의 표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먹을 짝 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웃을 향해 손을 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국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의도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울어진 벽은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보호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수직선에 대해 생각하면 건물과 무언가의 건설에 사용된다는 것이 흥미 롭습니다. 여기서 다림줄은 곧 무너지려는 무언가의 환상이 됩니다.

이 특정 이미지에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구절에는 몇 가지 해석상의 질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낙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이 특별한 단어가 나타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측량줄이나 다림줄에 사용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kav 입니다. 측량선이라는 뜻의 kav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21장 13절과 같은 구절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석가들의 마음에 몇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이 전통적으로 주어진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단어 anak 에 대한 동족 증거를 기반으로 한 대체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약성서에서 단어가 한 번, 두 번 또는 몇 번만 사용되어 그 의미를 판단하려고 할 때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카드어의 동족 증거에 따르면 아낙 과 관련된 아카드 외래어는 주석을 의미합니다.

이 비전이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갈 수 있는 해석 중 가장 좋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주석으로 만드신다는 생각,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성벽이 이 값싼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그들을 포위하려는 적의 공격에 대한 그들의 취약성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의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벽은 주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내용은 예레미야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당신은 적의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쉽게 무너질 주석으로 묘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책을 가르칠 때 전통적인 해석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는 수직선이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이 특이한 단어 인 아낙 (anak)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애도를 뜻하는 단어인 아나(anah) 라는 단어와 매우 유사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낙 과 아나 ,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 일어날 애도가 이것의 일부일 수 있는 일종의 예언적 말장난이나 아이러니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처음 세 가지 비전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본 하나님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불의 환상, 하나님은 심판으로 휩쓸 것입니다. 아모스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환상 3에서는 다림줄이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준을 따르지 않으며,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의 중간에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 막간이 있습니다. 영어 독자로서 이 글을 읽을 때 구약성서가 시와 산문을 혼합하는 방식이 종종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작가가 특정한 수사학적 이유로 산문과 시를 병치시키는 매우 잘 알려진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는 애굽인의 정복과 패배에 대한 산문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를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시적으로 축하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여 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시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시와 산문은 종종 함께 병치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는 회복을 약속하는 시적 신탁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시키신다. 32장과 33장, 이에 따른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야, 여기에 이야기를 삽입해보자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7장, 10장부터 17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독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가축을 많이 소유한 부유한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돌무화과나무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으로 설교하러 갔을 때, 우리는 아마샤라는 이름의 제사장을 통해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우리는 당신의 설교에 대해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성소를 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십시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모스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언의 말씀이 거절되었을 때, 참으로 거기 있었던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메뚜기 재앙과 불을 보내실 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와 내 생각에 일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모스의 메시지와 아무 관련도 맺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전 3, 자두, 비전 4, 비전 5는 모두 현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나오는 비전 4는 여름 과일 바구니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름 과일 바구니에 대한 환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시간이 생각나네요. 우리는 여름 과일 바구니를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글썄요, 여기 환상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언어적,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말장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것은 이것이다.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나는 여름 과일 바구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뜻은 이것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느니라 나는 다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Vision 3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날에 성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던져집니다.

고요. 그렇다면 여름 과일 바구니처럼 우리에게 별 해가 없을 것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죽음과 멸망이 닥칠 것이라는 불길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글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름 과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qaitz 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종말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카이트츠(qaitz)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인 카이트츠 바구니는 종말인 카이트츠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그 단어 끝은 다림줄의 환상에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내가 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름 실과를 추수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년의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시기 전의 마지막 사건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와 그들이 서로에게 지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거부함에 따라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처벌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선지자가 말해야 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서 빼앗아 갈 기근을 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환상, 그리고 우리를 이 메시지의 끝으로 이끄는 매우 파괴적인 그림은 다섯 번째 환상, 즉 무너지는 성소의 환상에서 발견됩니다. 이르되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도록 하여 모든 백성의 머리를 흘으라 그 남은 자를 내가 칼로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 중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며, 한 사람도 다가올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무너지는 성소의 환상이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설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장 1절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수도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땅에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시는 것으로, 이것은 심판이 다시 지진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지진은 주님께서 앓수르 사람들이 가져온 칼로 사람들을 죽이실 때 더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적인 두 번째 사실은 아모스서 전반에 걸쳐 선지자가 길갈, 브엘세바, 벤텔 같은 곳에 있는 성소에 가서 그들의 의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선지자가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일종의 은신처이자 피난처이자 폭탄 보호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장 초반부에는 성소 자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들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달되는 또 다른 생각은 이것이 너무 가혹하고 광범위하여 궁극적으로 이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스올 과 땅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그들을 취하리라.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메리즘(merism)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깊고도 스올 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으면 내가 그들을 찾아내어 데려가리라. 그러나 그들도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또 다른 메리즘으로 숨어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좋습니다, 아모스의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마침내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심판 부분의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듯 흔드리라. 조약돌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내 백성 중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죄인은 다 칼에 죽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전한 파괴입니다. 생존자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지만,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희망의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장에 걸친 이 끊임없는 심판, 심판,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준비를 하신 모든 끔찍한 일들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무너진 것을 고치리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다시 세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나라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와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베는 자와 포도를 밟는 자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을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릴 것이며, 모든 언덕이 그것으로 흘러들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재건하여 거주하게 하리라. 그들은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심판이 있는 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넘어 궁극적으로 유다의 멸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아모스는 예언적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적들에 의해 황폐화되는 대신에, 메뚜기가 그들의 농작물을 소모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뭄과 역병과 곰팡이를 보내시는 대신에, 그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모든 것을, 놀라운 농업 번영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을 살펴보면서 비판적인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 자주 말한 것은 이것이 종종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한 편집자와 편집자의 후기 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예언적 메시지의 무뚝뚝함.

그러나 문제 중 하나이자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구약의 모든 예언서인 선지자의 역할에 심판과 구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오직 심판만을 설교했다는 가정과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는 부적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도전적인 사고가 필요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초기의 비평적 학문이 선지자의 원래 말씀과 본문에 적용된 이후의 판이나 편집 수정 사이에 강력한 구별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경 본문을 있는 그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심지어 다수의 비평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메시지인 정경 본문에는 두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선지자와 후기 편집자의 차이는 결국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록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원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기록된 대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이 책들을 형성하고 형성한 편집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표준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원래 말과 나중에 편집자의 말을 구별해야 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자신이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생각과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다윗 집의 몰락과 유다의 궁극적인 포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믿는다면, 8세기에 아모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다 역시 앗수르 위기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편집자가 아모스의 후기 메시지 중 일부를 명확히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왔다는 생각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격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기 죄를 사하시며 그 자비를 천 대까지 베푸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출애굽기 34장, 7장). 그는 죄인을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들의 자녀에게 보응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이 냉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모스가 희망의 약속으로 설교한 모든 메시지를 단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사자의 입에서 찢겨 나갈 것이고 거기에는 약간의 꼬리, 귀, 다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역 중 어떤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것을 계시하실 수 없었다고 우리가 즉각 가정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가 수반한 것과 신명기 30장에 관련된 역사가 무엇인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서 백성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너와 네 자녀가 그의 목소리와 내가 네게 전심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 포로를 회복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쫓겨났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미래를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을 계시하신 것처럼, 모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이해하기로는 아모스가 가차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인 희망의 약속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구약의 신학에 비추어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32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의 집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황폐한 피난처처럼 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열 지파가 철수했습니다.

비록 다윗의 집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고 무너진 초막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다윗의 집을 회복시켜 다윗 왕이 다시 한 번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메시아의 통치와 통치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권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다윗
왕에게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 후에 그의 적들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메시아적
약속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유다에게 통치권을 약속할 때 네 형제 유다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공물이 오기까지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하였느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은 유다와 그의 지파에게 열국에 대한 통치를 포함하는 통치와 왕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성취는 다윗에게서입니다.

그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은 구약성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교리와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아 관련 구절입니다. 발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인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우리는 일어날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의 이마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셋의 아들들을 모두 쳐부술 것이다. 에돔은 빼앗길 것이다.

그의 원수인 세일도 쫓겨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용감히 행하고 있으니 야곱에게서 나온 자가 권세를 행사하여 그 성읍의 남은 자들을 멸하리라. 발람이 이르되 나는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노라 하니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실 것이며, 그 왕은 그의 적들을 다스리고 다스릴 것입니다.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은 에돔과 세일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권세를 잡게 되었을 때 그가 정복한 민족 중 하나가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창세기 49장과 민수기

24장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미래의 다윗 왕조인 메시아는 여기서 약속된 것의 최종 성취입니다.

다윗 왕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만일 너희 아들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로 인해 다윗의 집은 무너지고 무너진 초막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영광과 힘을 잃었지만,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은 단지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13-15절에 모든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쟁기질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는 자와 포도를 밟는 자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이 누리도록 계획된 놀라운 농업적 풍요로움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시적으로, 이 선들은 다른 수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교차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줄을보세요. 심는 일인 쟁기질하는 사람이 수확하는 일인 추수꾼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줄에서는 포도를 밟는 자, 즉 추수하는 일이 씨 뿌리는 자에게 따라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확을 통해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농업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의 수확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 좋은 사진이 있습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언덕들도 그것과 함께 흐를 것이다. 그러므로 언덕들 사이로 포도주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흐르는 젖과 꿀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라. 그들은 폐허가 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거기에 거주할 것이다. 그들은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정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유배의 조건은 역전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약속은 심판이 최종 말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이 회복과 후기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약의 선지자들 전체에 걸쳐 있는 종말론적 비전과 일치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게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미래를 다루는 소선지서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후 세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구약성서의 구절들과 그 구절들이 구약성서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에 비추어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더욱 완전합니다.

선지자가 후기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신약전서에 비추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될 것은 후일은 단순히 재림 직전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의 날과 큰 환난의 때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후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지 정말로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려는

축복에는 지금과 아직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장차 올 날, 그 말일은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그 축복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더 크고 더 극적인 방법으로 후기의 축복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찾아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모스 9장이 어떻게 인용되는지 살펴보면서 야고보는 이 구절을 사용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아모스가 다윗 왕가가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나라들에 관해 야고보는 그것이 기독교 선교사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설명하고 이방인에게 전파할 때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왕국. 이것이 바로 아모스가 말한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의 완성에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장소로 회복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다스릴 것이며, 다윗 왕은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끝에는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 왕국에 포함될 열방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약속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 관한 강의 시리즈의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10과, 심판의 비전과 회복의 약속, 아모스 7-9장입니다.